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토요일—저녁 집회)

메시지 6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함

성경: 히 7:25-26, 롬 8:26-27, 34, 골 1:9-11, 4:12

I. 그리스도는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이시자 신성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 히 7:25-26.

- A. 그리스도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조성되셨다(히 7:16).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다(행 2:24, 계 1:18).
- B.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정도와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 — 히 7:24-25.
- C.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철저히’라는 표현은 ‘완전히, 전적으로, 온전히, 끝까지, 영원토록’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정도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곧 모든 종류의 상황과 상태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D.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중보 기도하는 분이시다 — 히 7:25-26.
 - 1.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도록 그분을 임명하셨으며, 지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으로써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것이다.
 - 2.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 히 9:24, 엡 3:11, 딤후 1:9.
 - 3.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며, 결국 그분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이기고 정복하며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중보 기도예 의해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며, 그분의 구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4.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 히 7:25.
 - 5. 그리스도는 하늘들에서 사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 — 골 3:1, 1:27, 롬 8:34, 10.
 - a. 그분은 하늘들에 사시는 동안,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신다 — 엡 1:22-23.
 - b. 그분은 하늘들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지만, 그것의 실재는 그분의 영에 의해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된다.
 - c. 우리는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우리의 대제사장을 누리기를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서 공훈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을 것이다 — 히 4:14-16.

II.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 롬 8:34, 26-27.

- A.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 롬 8:34.
1.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지고 계신다 — 히 8:1.
 2.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구원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것과 일치한다 — 히 7:25-26.
 3. 완결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사람이시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많은 하나님-사람들인 우리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반대와 온갖 환경을 이기고 그분과의 연합 안에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으로 그분의 단체적이며 유기적인 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 롬 8:29, 34-39, 12:4-5.
- B. “그 영도 우리의 연합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 기도하십니다.” — 롬 8:26.
1. 여기서의 연합함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갈망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2. 우리가 탄식할 때 그 영도 또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그분의 중보 기도는 주로 우리가 생명의 변화를 체험하여 생명이 자라 아들의 자격의 성숙에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 롬 12:2, 8:29.
- C.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 롬 8:27.
1. 여기서 그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서 독립된 그 영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연합되어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된 그 영의 생각이다 — 롬 8:6.
 2. 그 영은 자신을 우리의 영과 연합시키셨을 뿐 아니라(롬 8:16),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연합시키셨다.
 3. 살피시는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 자신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 롬 8:29.

III.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해야 한다 — 히 7:25-26, 롬 8:34, 행 12:5, 골 1:9-11, 4:12.

- A.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는 생활에 참여해야 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중보 기도에 반향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도해야 한다 — 롬 8:26-27, 34, 딤후 2:1, 골 4:3, 살전 5:25, 살후 3:1, 히 13:18.
- B. 우리의 기도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길을 얻으신다 — 계 5:6, 8:3-5, 앢 1:10, 17-23.
- C.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중보 기도를 보며,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와 4장 12절에서는 바울과 에바브라의 중보 기도를 본다.
1.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 행 12:5.
 - a. 장면 뒤에서 영적인 세력들의 전쟁, 곧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인 사탄 사이의 전쟁이 있었다 — 행 12:4-6.

- b. 교회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 사탄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한다 — 행 12:5-23.
- 2.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기도하였다 — 골 1:9.
 - a.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뉘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 골 1:12.
 - b.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심오하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게 하는 것이다 — 빌 3:7-10, 1:21상, 골 3:4, 엡 3:17상.
- 3. 에바브라는 성도들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그들을 위하여 분투하였다 — 골 4:12.
- D. 기도의 위치는 승천, 곧 하늘에 속한 위치이다 — 엡 1:3, 2:6.
 - 1. 우리는 하늘에 속한 위치를 떠날 때 기도의 위치를 잃게 된다.
 - 2. 기도의 위치에는 기도의 권위가 함께 있다. 기도의 위치가 승천인 것처럼, 기도의 권위 또한 승천이다 — 마 17:20, 18:18-19.
 - 3.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위치와 권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정, 곧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 된다 — 마 6:10, 엡 2:6, 6:18.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히 7:25하).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떠맡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완전히 이끌리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중보 기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중보 기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중보 기도를 누려야 한다. 우리의 신성한 대제사장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라. 많은 경우 우리는 그분의 중보 기도에 의해 구원받았다.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아시며, 일단 넘어지면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한다는 것도 잘 아신다. 조만간에 그분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이기고 굴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중보 기도에 의해 완전히 굴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도록 그분을 세우셨으며,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회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히 4:16).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아침저녁, 밤낮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당신께 제 자신을 엽니다. 당신은 풍성하십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께 항상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782쪽)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아마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임들, 곧 신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임을

갖고 계신다고 일러 주고 있다. 처음에 그리스도는 주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이미 예언된 신언자로서 오셨다. 땅에서의 사역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말씀해 내셨으며,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예언하셨다. 이것은 신언자로서 그분의 역할이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땅에서의 사역 중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기 시작하셨으며, 결국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 제물의 실재로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점에 있어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시점 이후로부터 줄곧 그분은 이 기능을 갖고 계셨다.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은 이루어졌음

레위 당시에 제사장들은 두 종류의 일을 했다. 첫 번째 일은 바깥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다. 일단 제물이 드려진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분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제사장의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고, 제사장의 두 번째 일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그분은 땅 위의 바깥마당에서 제물을 드리시는 제사장이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부활 후에 셋째 하늘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지성소이다. 여기에서 그분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섬기기를 계속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의 이 두 번째 방향이다. 이 하늘에서의 제사장 직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직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방대한 주제이다. 히브리서는 이 문제를 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상고하는 데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나는 당신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을 읽을 것을 권한다(특히 13, 27-28, 31-33, 35장을 참고하라).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분이신 우리의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려면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했다(히 2:16-17).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았다’(히 5:1). 만일 천사라면 그는 사람의 문제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에 참여하셨다. 그분은 피와 살에 참여하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게 되셨다. 그분은 먹고 마시셔야 했다. 심지어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 곁에서 눈물을 흘리셨다(요 11:35). 그분은 땅에서의 사역이 끝날 때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눅 19:41). 그리고 그분은 겻세마네 동산에서 ‘크게 부르짖으시며 눈물로’ 기도하셨다(히 5:7). 심지어 오늘도 그분은 한 사람, 곧 영광 안에 있는 한 사람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히 4:15)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점들과 문제들을 철저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러한 분이 사람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동정하실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신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을 동정할 수는 있었지만, 신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때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에 따른 분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분이시다(히 5:6, 10, 6:20).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족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창 14:18-20, 히 7:3). 이는 그가 영원하신 분으로서 항상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적합한 예표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동정하신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능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하나님-사람을 찬양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졌다’(히 7:16). 아론은 능력 없는 율법의 문자에 따라 세워졌으나, 그리스도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요소에 따라 세워지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 무엇에게도 정복당하지 않는 생명, 오히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생명으로 세워지셨다.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요, 철저히 구원하는 생명이다. 무궁하고,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다.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 그분은 하늘의 대법원에 계신 우리의 대표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송 문제를 제출하는 우리의 변호사이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비록 그분의 구속의 일이 성취되었지만,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의 하늘에 속한 섬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필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심

우리는 얼마나 그분이 필요한지!

주여 늘 필요하니 항상 내게 오사

매 순간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86장)

확실히 매시간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다. 순간순간 우리는 무슨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집회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집에 당도하면 기쁨은 사라지고 할렐루야와 아멘 대신에 침묵과 긴 얼굴만 있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혹은 오한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거기서 우리의 상황을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긴 얼굴을 하고 있거나 아플 때 우리를 짊어지신다. 그분의 중보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하늘에서, 곧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시는 사역이다.

당신은 그분의 중보 기도하심을 자주 깨닫지는 못하지만, 가끔 그분이 당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 당신은 아내와 한참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왜 화난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내 경우를 보면, 나는 하루 온종일 지속되는, 심지어 밤새도록 지속되는 분노 가운데 있곤 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나는 결코 화를 끝까지 낼 수가 없었다. 내 기억을 돌이켜 보건대, 나의 화가 지속되는 것은 길어야 몇 분이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얼마나 오랫동안 화난 채로 있는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는 근심하게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염려들이 끝이 없었다. 지금은 근심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달래는 위로를 곧 느끼게 된다.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이것이 바로 그 기도에 의해 산출된 효과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응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염려를 감당하십니다. 내 모든 근심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단지 짧은 몇 마디 말로 근심이 사라진다.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끝이 없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를 유죄 판결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유죄 판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한 체험을 많이 갖고 있다. 많은 때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 일깨워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심지어 이끌려지기도 했다. 만일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관한 간증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움은 밖에서부터 왔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왔다. 또한 이 도움은 하늘에서도 온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부축하고 위로하고 빛 비추는 것이 우리 속에도 있고, 위로부터도 우리에게 온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로부터 오는 이러한 부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69-74쪽)